

한국교회 설교는 어떠했을까?
- 한국교회에서의 설교, 그 역사와 평가 -

이상규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1. 시작하면서 | 62
2. 한국 장로교회 설교의 역사적 개요 | 64
3. 반성과 평가: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와 과제 | 93





요약

한국교회 설교는 어떠했을까?

- 한국교회에서의 설교, 그 역사와 평가 -

이 글은 한국교회, 특히 한국장로교회의 설교의 개략적인 경향이 어떠했는가를 고찰하였다. 한국교회의 설교가 어떠했는가를 시대별로 고찰하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설교자들의 설교문을 중심으로 1970년대까지의 한국(장로)교회 설교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 글은 비록 장로교 중심의 연구이지만 장로교회가 한국전체교회의 60-70%를 점하고 있으므로 광의의 한국교회의 설교를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설교는 시대정신(Zeitgeist)이나 교회적 환경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대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고, 이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가 성경(text)과 현실(context)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고찰하였다. 이 글 후반부에 한국교회 강단의 쇄신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에 대해 주목했다.

*An Appraisal of Preaching in
the Korean Church*

주요어
한국교회, 장로교, 설교

Abstract

An Appraisal of Preaching in the Korean Church

Prof. Dr. Sang Gyoo Lee

This is a historical survey and an appraisal on the preaching in the Korean church, especially concerned with the case of Presbyterian churches in Korea, over a century from the earlier missionaries to 1980's, when salvation-historical(heilsgeschichtlich) preaching were introduced in the Korean pulpit. Until 1930, topical preaching were favoured by both Korean missionaries and Korean preachers, which were introduced mainly by Charles Allen Clark(1878-1961), a missionary from the PCUSA, who thought practical theology for more than thirty years at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Pyung Yang, Korea. Topical preaching in Korean situation stresses sometime Confucian value or teachings together with the Scriptural emphasis, which bedimmed biblical perspectives. Nationalist loyalty and patriotism were also manifested in Korean preachers' sermon in the early years.

From 1930's Korean sermon became more diversified. Liberalism, mysticism and Japanese non-church type theology were flowed into Korean pulpit. Especially from 1930's on,

Japanese commentaries written by non-church type persons, such as Takeci(藤井武), Uchimura Kanjo(内村鑑三, 1861-1930), Yanihara Dadeo(失内原忠雄), and Kurosaki (黑崎幸吉) influenced greatly to Korean preachers and their preaching.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resistance to the Shinto shrine were one of the main issue, and it was strong manifested in leading preachers including Ki chul Ju and Sang Dong Han.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e, especially in the 1970's, church growth were main concern, accordingly earthly blessing were dominant topic in Korean church pulpit including Presbyterian churches. From 1980's redemptive-historical message were gradually introduced, which means to avoid moralizing in Korean preaching. Example type preaching or moralizing approach to the Bible has been negatively affected sermons in Korean church.

Keywords | Korean Church, Presbyterianism,
Preaching, History of Preaching, Reformed
Faith

1. 시작하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신학교에서 33년간 설교학을 가르쳤던 콕안런(Charles A. Clark)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에서 사람을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종교적 강화”라고 정의했다.¹⁾ 포사이드(Peter T. Forsyth, 1848-1921)는 설교는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제도”라고 말하면서 설교가 어떠한가에 따라 기독교의 성패가 달려 있다(with its preaching Christianity stands and falls)고 했다.²⁾ 설교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설교자 자신이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본문(text)은 상황(context) 가운데 주어졌고, 본문은 ‘삶의 정황’에서 해석되고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설교는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설교는 어떠했을까?³⁾ 한국교회의 설교의 역사를

-
- 1) 이 입장은 자신의 스승 Herrick Johnson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콕안런, 『설교학』(대한기독교서회, 1960), 16. 콕안런의 이 책은 1925년 10월 초판이 발간된 이후 1989년 7월 제26판이 발간되었을 정도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설교학 교과서로 사용되었고, 한국교회 설교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이호우, 『콕안런의 신학과 사상』(생명의 말씀사, 2005), 206.
- 2) P. T. Forsyth, *Positive Preaching and the Modern Mind* (1964), 1. Klaas Rumia, *The Sermon Under Attack* (Exeter: The Paternoster Press, 1983), 1에서 중인.
- 3) 필자는 이 주제와 관련한 강연 혹은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1992년 일본 고베신학교에서 한국교회 설교에 대해 강연한 바 있고, 이 때의 강연은 “한국에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허순길 박사 은퇴기념 문집인 『개혁교회의 정로』(고려신학대학원, 1995)에 게재되었다.(201-228), 또 필자는 주기철(“주기철의 삶과 설교, 저항권 사상”), 박운선[“박운선의 신학과 설교,”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생명의 양식, 2007, 229-265)]의

통해서 한국교회의 성경이해, 성경해석 혹은 한국교회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간(E. C. Dargan)의 지적처럼 “설교의 역사는 바로 교회의 역사”라고 일컬어져 왔다.⁴⁾

이 글의 목적은 한국교회, 특히 한국장로교회의 설교의 개략적인 경향이 어떠했는가를 고찰하는데 있다. 한국교회의 설교가 어떠했는가를 시대별로 고찰하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설교자들의 설교문을 중심으로 한국(장로)교회 설교에 대해 주목하였다. 한국교회의 설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연구가 있었으나,⁵⁾ 한국교회사적 혹은 통시적인 연구가 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1970년대까지 한국교회사적 환경에서 ‘설교의 일반적 경향’이 어떠했는가에 주목하였다. 이 글은 비록 장로교 중심의 1970년대까지의 연구이지만 장로교회가 한국전체교회의 60-70%를 점하고 있으므로 광의의 한국교회의 설교를 함의 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한국교회의 설교가

설교에 대해 논구한 바 있다.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에서 “개혁교회와 설교의 갱신”(2013. 2.19)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이 전의 글을 보완 수정하였고, 2013년 4월 27일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 4) 정성구, 『한국교회 설교사』(충신대학교출판부, 1995), 17.
 5) 한국교회 설교에 대한 연구로는(연도순), 엄요섭, “한국교회의 설교의 시대적 형태론, ”[『기독교사상』16권, 4, 5, 6호(1972, 4, 5, 6)], 백낙기, “한국강단에 비친 설교의 형태론적 연구”(장신대원 신학석사학위 청구논문, 1974), 정석현, “한국교회 설교에 나타난 사회적 관심”(계명대 교육대학원, 1974), 김용옥, “한국교회 설교유형에 관한 성서해석학적 고찰,”[『신학과 세계』3호(1977.10), 25-44], 김태복, “70년대의 한국의 설교분석, ”[『월간목회』77호(1983. 3), 77-88], Yoo Boo Woong, “Biblical Preaching and Its Application to the Pulpit of the Korean Church, ”(DMIn Thesi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4), 민경배 편, 『한국교회설교가 연구1』(한국교회사학연구원, 2000), 유경재 외, 『한국교회 16인의 설교를 말한다』(대한기독교서회, 2004), 목회와 신학 편집부, 『한국교회 설교분석』(두란노아카데미, 2009),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홍성사, 2011) 등이 있다. 한국교회 설교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정성구, 『한국교회설교사』(충신대학교출판부, 1995)인데, 이 책은 저자가 『신학지남』192호(48권 4집, 1981)부터 208호(53권 2집, 1986)까지 연재했던 원고를 수정보완하고 재편집한 것이다.

어떠했던가에 대해 한편의 논문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난 130여년 간 한국교회에 7만명 이상의 설교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설교자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설교형태 또한 다양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설교에 대해 간명하게 말한 다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시대정신(Zeitgeist)이나 교회적 환경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설교는 시대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 설교의 일반적 경향을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한국교회가 성경(text)과 현실(context)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반추해 보는 일은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교회 설교의 일반적 경향을 편의상 몇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고, 글 후반부에 한국교회 강단의 쇄신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에 대해 주목했다.

2. 한국 장로교회 설교의 역사적 개요

1) 초기 선교사들의 설교

한국에서 첫 개신교회가 설립된 때는 일본의 1872년보다 11년 늦은 1883년이었다. 이때 설립된 소래(松川)교회에 이어 1887년 서울에 새문안교회가 설립되면서 남대문교회(1887), 승동교회(1893), 연동교회(1894) 등 장로교회가 설립되었다. 평양에서는 1893년 6월 장대현교회가 설립되었고, 이 교회를 모체로 평양의 남문밖(1903), 창동(1905), 산정현(1906), 서문밖(1909), 그리고 외성교회(1911)가 설립되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교회(1892), 초량교회(1893), 제일영도교회(1894)가, 대구에서는 대구제일교회(1893), 범어교회(1912), 신정교회(1912), 남산교회(1914) 등이 차례로 설립

되었고 전국적으로 교회가 설립되었다.

감리교회의 첫 목사가 배출된 때는 1901년이었으나 장로교회의 경우 1907년에 첫 목사 7인을 배출했다. 이 때 한국장로교회는 전국적으로 785개에 달했고, 세례교인은 1만 8천 여명, 전체교인은 7만 2천명에 달했다.⁶⁾ 또 목사선교사는 49명이었다. 1912년에는 장로교총회가 조직되었는데, 이 당시 약 2천여 교회가 있었고 신자수는 12만 7천명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인(장로교) 목사수는 69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때의 목사선교사는 77명이었다. 한사람의 목사가 한 교회를 담임한다고 가정하면,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는 전체교회의 7%에 불과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사들의 관할 하에 있었고, 선교사는 보통 40여개 이상의 교회를 관장하고 있었다. 결국 이 당시 설교자들은 주로 선교사들이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의 설교 혹은 설교관이 어떠했는가 하는 점은 그 이후의 한국교회의 설교형식과 내용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당시 영향력 있는 장로교 선교사들로는 원두우(H. G. Underwood, 1859-1916), 배위량(W. M. Baird, 1862-1931), 마포삼열(S. A. Moffett, 1864-1939), 이눌서(W. D. Reynolds, 1867-1951), 콕안련(C. A. Clark, 1878-1961), 구레인(J. C. Crane) 등이었다. 이들의 설교가 어떠했는가를 말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한국에서 최초의 설교집이 발간된 때는 1920년이었는데, 그것이 언더우드의 『원두우 강도취집』이었다.⁷⁾ 그러므로 1920년대 이전의 선교사들의 설교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신학지남』에 게재된 선교사들의 설교와 설교론을 통해 당시 선교사들의 설교가 어떠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장로교의 첫 신학잡지인 『신학지남』이 창간된 때는 1918년이었는데, 이 잡지에 선교사들의 설

6) 이만열, 『한국기독교 수용사 연구』(두레시대, 1998), 364.

7) 원두우, 『원두우 강도취집』(예수교서회, 1920). 63pp.

교가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곽안련은 1918년부터 1940년까지 42개의 설교 전문과 700여개의 설교 주제와 본문, 250개의 설교요약문을 포함하여 많은 논문과 예화, 그리고 유관 서적을 소개하는 글을 『신학지남』에 게재하였다.⁸⁾ 신학지남 창간시부터 편집 발행인이었던 곽안련은 한국인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의도에서 설교문을 게재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곽안련의 설교, 설교관은 한국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곽안련은 설교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지만 본문설교, 제목설교, 주해(해석)설교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앞의 두 가지 유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가 주해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설교방식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단 한편의 주해설교도 남기지 않았을 정도였다. 또 본문 설교라고 할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설교의 제목과 설교의 대지를 본문에서 추출한다는 의미였다.⁹⁾ 그러면서도 설정된 제목을 강화해 가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본문 설교라는 것이 오늘의 강해설교 혹은 강해식 설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설교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본문’을 말하는 것은 설교의 구성을 선택된 본문에서 취한다는 것일 뿐 설정된 제목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점에서는 제목 설교와 다르지 않다. 말하자면 곽안련이 제시하고 실제로 강도했던 설교는 제목 중심의 설교였다.¹⁰⁾ 그는 설교 ‘본문’ 보다는 ‘제목’이나 설교의 ‘목적’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¹¹⁾ 그러면서 그는 본문을 대지(大旨)

8) 이호우, 209. 『신학지남』 창간호에 실린 곽안련의 첫 설교는 “예수의 평안과 사단의 평안을 비교 함”(요14:27)인데, 단 한절을 본문으로 선택한 점에서 암시되듯이 제목 설교의 형태를 띄고 있다. 서론에서 이 세상을 사단과 동일시하여 예수님과 사단이라는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있다.

9) 곽안련, 57.

10) 곽안련은 『신학지남』 1918년부터 1939년까지 기고한 설교문 중 설교전문을 담고 있는 설교는 42편인데, 유형별로 보면 제목설교가 36편(88.1%), 본문설교 6편(11.9%)였고 주해설교는 한편도 없었다(이호우, 229).

11) 이호우, 216. 이런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신학지남』에 게재된 설교들이다. 대표적인

와 소지로 나누는 제목 설교를 권장했다.

제목은 통째로 단번에 던지면 청중은 붙잡기도 곤란하고 이해하기도 곤란하나 그것을 여러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번에 한부분씩 주어 결국 다 주면 비록 작은 어린이이라도 그것에 대하여 다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아서 대지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이다.¹²⁾

언더우드도 이와 유사하다. 191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창립 총회장으로 피임된 언더우드는 빌립보서 3:8-10을 본문으로 “모든 것을 해로여 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¹³⁾ 이 설교는 제목설교로서, 1.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2.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 3. 예수와 같이 고생하면 같이 즐거워함이라는 3가지 주제로 전개하고 있고, 예수를 쫓는 자에게는 3가지 길이 있는데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다스리게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의 설교는 전형적인 제목설교로서, 세 대지로 나누어져 있으나 제목이나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본문을 강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여러 본문을 인용하면서 설정된 대지를 강화하고 있다.

『원도우 강도취집』은 언더우드가 미국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행한 설교문을 언더우드가 작고한 후 부인 릴리아스 호튼(L. Horton)이 한글로 번역하여 펴낸 설교집인데, 12편의 설교로 꾸며져 있다. 즉, 1. 하느님이 교회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 2. 신자의 본분으로 행할 일, 3. 성찬 예식, 4. 하느님의 높이 부르시는 상, 5. 성경, 6.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중에서 자라가라, 7.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 8. 이웃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하라, 9.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라. 10.

경우가 『신학지남』 2(1919. 4), 103-116.

12) 광안련, 139.

1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 편, 『역대 총회장 설교』(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 1955), 18-22.

예수와 같이 고생하면 예수와 같이 즐거우하리라, 11. 내생관, 12. 부활주일 등이 그것이다.¹⁴⁾ 이 설교집에 포함된 설교 또한 제목 중심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초기 선교사들의 설교는 제목설교(topical preaching)라고 불리는 주제중심의 설교였다.¹⁵⁾ 그리고 제목에 따라 본문을 대지와 소지로 나누는 방식을 취했다. 이런 설교방식은 190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교회에서 유행하던 설교 방식이었다. 이런 설교는 설정된 주제를 강화시켜 가야 했으므로 많은 예화가 도입되었다. 이런 필요 때문에 『신학지남』 3호에서부터 설교에 필요한 예화들이 “강도에 인용할 만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게재되기 시작했다. 성경신학적 이해가 크게 결핍되어 있던 당시 이 주제중심의 제목설교는 한국인들에게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성구는, 궤안련은 “한국교회 강단의 방향을 잡아 주었고, 한국장로교회 목사들의 설교의 내용과 틀을 만들어갔다.”고 평가했다.¹⁶⁾

초기 선교사들의 설교의 내용은 복음과 영생, 속죄, 구원, 하나님의 사랑 등이 포괄적 주제였는데, 그것은 당시의 시급한 요청이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의 설교 주제는 천당과 지옥, 예수와 사탄, 선과 악 등을 대비하는 단순한 것이었고, 그 내용은 전도지향적이고 복음적이었다. 이런 초기 선교사들의 설교는 한국인들의 신앙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설교방식이 한국교회 설교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초기 한국교회 신자들은 대체적으로 유교적 전이해(前理解)를 가진 이들이었기 때문에

14) 『기독신보』 1935년 5월 15일.

15) 정성구, 18. 임희모는 제목설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주된 설교방식이었고, 길선주, 김익두, 박형룡 등은 제목설교의 지지자들이었다고 지적한다(Hee-Mo Yim, *Unity Lost- Unity To Be Regained in Korean Presbyterianism*, 160). 궤안련은 제목설교의 장점으로 3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함으로써 설교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제목에 대해 충분히 철저한 토의를 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설교자의 분석 능력과 창의적 능력을 개발한 다는 점이 그것이다(궤안련, 37-38).

16) 정성구, 43.

설교는 자연히 도덕적인 혹은 유교적 가르침에서 기독교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 성격이 짙었다. 다시 말하면 설교에서의 도덕적 성격이 짙었다.

2) 1920년대까지 한국인 목회자들의 설교

앞에서 언급했듯이 초기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절대적 영향 하에 있었으므로 설교에 있어서도 선교사들의 설교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인 사역자들의 설교란 선교사들의 그것을 모방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또 설교 유형은 제목 설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부웅, 17) 정성구, 18) 이호우¹⁹⁾ 등의 연구가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이 당시 주로 활동한 장로교 설교자로는 1907년 목사안수를 받은 7인의 목사인 서경조(1852-1938), 한석진(1868-1939), 양전백(1870-1933), 방기창(1851-1911), 길선주(1869-1935), 이기풍(1865-1942), 송린서(1867-1929?)와 김익두(1874-1950) 등과 김영재(金永濟), 이명혁(李明赫) 등 초기 목회자들이다. 비록 목사안수는 받지 않았으나 한국 교회 강단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없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근대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신학도였던 윤치호(1865-1945)였다. 이들의 설교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으나 1920년에 출판된 『백목강연』(白牧講演)²⁰⁾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설

17) Yoo Boo Woong, "Biblical Preaching and Its Application to the Pulpit of the Korean Church," (DMin Thesi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4), 83-85.

18) 정성구, 102.

19) 이호우, 234-5.

20) 양익환(梁翊煥)이 편집한 이 설교집 1권은 1920년 5월 경성의 박문서관(博文書館)에서 출판되었다. 본래는 백인의 설교를 수록하여 4권의 『百牧講演』을 출판하려고 기획했으나 2권을 내고 중단되었다. 1권과 2권에는 각각 25인의 설교가 게재되어 있다. 이 설교집에 수록된 설교는 일제 당국의 검열을 받았으므로 민족해방과 독립, 반일적 내용은 게재되지 못했다. 정성구, 『한국교회 설교사』, 136-154.

교집은 한국 최초의 설교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설교집에는 주로 1910년에서 1920년 어간에 교회에서나 기타 모임에서 선포된 설교들이 수록되어 있다. 일제하의 상황이란 점에서 출판된 설교 내용은 실제 설교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설교집을 참고해 볼 때 이 시기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²¹⁾

- 1) 영생과 구원, 하나님의 사랑 등 구원예의 초청이 주된 선포였다는 점
- 2) 새로운 윤리의 표준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제시하고,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강조하는 계율적인 요소가 짙었다는 점
- 3) 도덕적 요소, 곧 권선징악(勸善懲惡) 혹은 상선벌악(賞善罰惡)적 강조에 치우쳤다는 점
- 4) 현세적 삶에서의 신앙보다는 내세적인 경향이 짙었다는 점
- 5) 충군애국(忠君愛國)적 설교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 당시 설교자들이 본문설교(textual serman)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한국어 설교의 자구적(字句的) 해석에 지나지 않았다. 성경신학에 대한 이해나 신학전통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어 있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본문설교이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성경본문을 exegetish 하기보다는 eisegetisch 하는데 그쳤다.²²⁾ 그래서 설교의 형식은 여전히 제목중심의 풍유적(allegorical) 설교와 유비적(analogia) 설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 당시로 볼 때 풍요적 설교는 설교자에게나 청중들에게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21) 『백목강연』 1권을 비롯한 당시 설교를 중심으로 한 필자의 분석인데, 이 설교집에는 아펜셀라, 로라복, 게일 등 선교사들과 최병헌, 이명혁, 이명직 등 목사들과의 설교, 홍병선, 이범진, 이병주 등 전도사들의 설교와 김환란, 윤치호, 그리고 이화학당의 교사였던 신준려 여사 등의 설교 총 25편이 수록되어 있다.

22) Hee-Mo Yim, *Unity Lost- Unity To Be Regained in Korean Presbyterianism* (Peter Lang, 1996), 156.

풍요적 설교란 본문보다는 본문 배후에 있는 뜻을 밝혀내는 것을 해석의 중요한 과제로 삼기 때문에, 이런 설교는 설교자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청중들에게는 영적 신비로움으로 받아 드려졌던 것이다. 아마도 이런 매력 때문에 오리겐(Origen) 때부터 이런 설교가 유행했을 것이다. 유비적 설교란 성경의 가르침을 한국적 상황에서 비유적으로 설교하는 방식인데 이런 유형은 당시의 지배적인 방식이었다.

이 시기 설교는 그 내용면에서 선교사들의 설교와 두 가지 면에서 달랐다. 그것은 설교에서 도덕적 요소가 강했다는 점과 충군애국적(忠君愛國的) 성격이 짙었다는 점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헤아려 보는 것이 유익하다.

1870년대를 거쳐 가면서 조선은 더 이상 ‘은자의 나라’(Hermit nation) 이거나, ‘조용한 아침의 나라’(Land of Morning Calm) 일 수 없었다. 배외쇄국(排外鎖國)의 이데올로기는 외세에 의해 허물어져 가기 시작하였고, 흥선대원군의 실각(1873)과 운양호사건(1875)으로 조선은 비무장 한 채로 냉엄한 국제질서의 현장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런 민족적 위기 앞에서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전래되었고, 교회는 민족과 함께 있어 왔다. 또 임오군란(1882)을 전후한 청과 일본의 각축전, 그리고 러시아의 남하정책, 동학혁명, 갑신정변(1884), 청일전쟁(1894-5), 민비시해사건(乙未事變, 1896)의 와중에서 백성들은 어떤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고 있었다. 선교사들이 발간하던 코리안 리포지토리(Korean Repository)에서는 “이 가련한 조선 인들은 고난과 불안의 와중에서 두 손을 뻗쳐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독립신문』의 시각처럼 충군애국(忠君愛國)과 신앙구국의 길을 걷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한국인들의 설교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즉 순수한 복음에의 초청과 신앙구국의 소명이 그것이다.

3) 1930년대 이후의 설교

193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는 신학적 변화가 일고 있었다. 그 변화를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진보적 신학의 대두였다. 한국교회 초기부터 성경적 설교를 했던 인물이 마포삼열(Samuel Moffett)인데, 그는 1934년 한국교회에서 신학적 변화를 적시한 바 있다.²³⁾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출현에 대한 경고였다. 진보신학이 보다 분명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1930년대이지만 이미 1920년대 후반부터 이 신학은 태동되고 있었다. 이 신학에 근거한 설교가 함경도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⁴⁾ 그 첫 인물이 김장호(金庄鎬, 1881-?) 목사였다. 그는 1916년부터 공개적으로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기 시작했다.²⁵⁾

23) “오늘 어떤 신 신학자들은 나를 너무 보수적이라고 비난한다. ... 근래에 신 신학이니, 신 복음이니 하는 말을 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러한 인물을 삼가야 한다.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죽는다든지, 혹은 귀국하든지 조선교회 형제여 40년 전에 전파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자”(Today some modernists criticize me as a being too conservative. ... There are those who go about talking a new theology, a new Gospel, today, but let us beware of them. Even though the Korean missionaries should all die or leave the country, let the brethren of the Korean church continue to preach the same Gospel as forty years ago).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총회종교교육부, 1956), 190-191.

24) 한국에서 자유주의적인 설교를 한 대표적인 인물은 평양신학교 7회 졸업생인 김장호 목사였다. 그는 1914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재령 주재 복장교로 선교사인 공위량(W. C. Kerr)의 비서로 일한바 있는데, 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16년에 행한 자유주의적인 설교로 그는 황해노회 총대권을 박탈당했고, 1918년 12월 제15회 황해노회에서 이단으로 지목되어 면직, 제명되었다. 그 후 그는 “조선기독교회”를 조직하였다.

25) 김장호목사의 자유주의적 설교의 두 가지 경우를 소개하면, 첫째 출애굽과정에서 홍해 도강(渡江) 사건을 밀물과 썰물의 예로 설명하면서,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강을 건넌 것이라고 하여 초자연적 기적을 부인하였다. 또 오병이어(五餅二魚)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주장했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을 드렸을 때 감동을 받은 모든 군중이 각자 준비한 것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런 설교는 당시로는 큰 충격이었고 한국교회 설교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후일 그는 제명을 당했고, 김익두와 일대 논쟁을 벌였다.

두 번째로는 신비주의 혹은 신령주의(神靈主義)의 대두였다. 이 운동은 주로 원산에서 일어났는데, 비신학적 주관적 성경해석, 예언과 방언, 신림(神臨)을 강조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황국주, 백남주, 이용도 등이었다. 이용도는 독일의 에크하르트와 비교되기도 하는데, 그의 부흥집회를 통해 나타난 신비주의적 경향성은 암울한 이 시기의 영적 탈출구였다. 자유주의가 ‘교회 없는 신학’ 운동이었다면, 신비주의 운동은 ‘신학 없는 교회’ 운동이었다. 결국 신비주의는 신학적 전통을 무시하는 주관주의적 경향으로 발전하여 교회에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셋째는 무교회주의의 대두이다.²⁶⁾ 무교회가 일본의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듯이 한국교회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다. 무교회주의는 경남 일주(특히 김해지방)에서는 신진리파(新眞理派)란 이름으로 나타났다. 1960년 대까지만 해도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 1861-1930)의 책이 없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그의 책은 한국인 목회자들 사이에 폭넓게 읽혀졌다. 그러면 왜 무교회주의자들의 저술이 것처럼 애독되었을까? 당시 한국인들의 저서나 저작은 많지 못했고, 일본의 기독교 관계 서적은 쉽게 유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한국인 목사들은 영서(英書)는 읽지 못했으나 일본어는 읽을 수 있었으므로 우치무라 간조, 후지이 다케시(藤井武), 야나

26) 한국에서 무교회주의는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의 제자들인 김교신(金敎信, 1901-1944), 함석헌(咸錫憲, 1901-1989) 등 6인이 일본유학에서 돌아온 1927년부터 한국에 구체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무교회운동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 중심의 성경공부의 강조였고, 문서를 통한 전도활동을 중시하였다. 일본 교배신학교 전 교장이었던 마키타(牧田吉和)는 일본에서 무교회 인물은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했다고 지적했는데, 한국의 무교회적 인물들에게도 이런 점이 나타나지만, 이들의 민족주의적 성격이 무교회 신앙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무교회 신앙잡지인 『성서조선』의 동인이었던 함석헌은 이 잡지에 “성서로 본 한국역사”라는 글을 게재하였는데, 후일 이 책은 『뜻으로 본 한국역사』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한국 ‘민족의’ 역사를 ‘신적 섭리’라는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또 김교신은 복음에 대한 강한 열정과 함께 조선의 역사, 민족, 자연에 대해 큰 애정을 갖고 있었고, 이를 노래한 시를 남기기도 했다.

이하라 다대오(失內原忠雄) 등 무교회 인사들의 저작은 요긴한 설교의 안내서였고, 이들의 저작은 소리 없는 영향을 끼쳤다. 또 한국인 목회자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했던 의식 있는 젊은이들은 보다 차원 높은 가르침으로 인식했던 무교회주의자들의 서적을 애호하였다. 그래서 무교회주의 또한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쳤다. 물론 무교회 인사들의 저서 외에도 구로사끼 고기찌(黑崎幸吉),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 등의 저서들도 한국인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주기철 손양원 등도 무교회주의 서적을 탐독했던 이들이었다.

이상과 같은 한국교회의 신학적 변화와 함께 193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설교가 그 내용면에서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그 이전 시대의 설교는 복음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 내용이 단순했으나, 이제는 주관주의적인 신비적, 탈교의적 설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설교자들은 길선주(吉善宙, 1869-1935), 김익두(金益斗, 1874-1950), 오인명(吳仁明, 1893-1976), 주기철(朱基徹, 1897-1944) 등이었다. 이 시기 설교를 헤아려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조선의 강단』²⁷⁾, 『한국교회 순교사와 그 설교집』²⁸⁾ 그리고 『희년기념 목사 대 설교집』²⁹⁾이다. 후자의 경우 당시 목회자들의 170여 편의 설교가 게재되어 있는데, 다소 특이한 점 3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 주관주의적, 신비적,

27) 1928년 김춘배(金春培)가 편집한 이 설교집에는 정춘수, 박용의, 오기선, 김길창, 김인영, 전영택, 박형룡, 이명직, 전필순, 배은희, 광진근, 채필근, 변성옥, 이성휘 목사 등 교파를 망라하여 35명의 설교 35편이 수록되어 있다.

28) 김인서가 편찬한 이 설교집(부산: 신앙생활사, 1962)에는 길선주(“감독의 책임”, 행 20:28), 김익두(“七重의 좁은 문”, 마7:13-14), 임종순(“금일에 복인가 금일에 화인가”, 신11:26, “신앙의 담력”, 딤후전 3:13), 김선두(“내 집을 채우라”, 눅14:23), 낭궁혁(“은총의 삼단계”, 마13:23, “앞으로 나아가자”, 출14:15), 주기철(“삭개오의 신앙”, 눅19:1-10, “예언자의 권위”, 마3:1-12) 목사의 설교 9편이 수록되어 있다.

29) 정인파 편, 『희년기념 목사 대 설교집』(서울, 1935).

그리고 탈 교의적 성격의 설교가 있다는 점, 둘째로는 설교배후에 민족의식이나 그 성격이 나타나 있다는 점, 셋째로는 내세 지향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볼 때 1930년대 이후는 민족적 시련기였고 역사 현실에서의 소망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만주사변(1931), 상해사변(1932), 중일전쟁(1937) 그리고 태평양전쟁(1941)에 이르기까지 ‘15년 전쟁’은 한국인들에게 현실적 허탈감을 안겨 주었다. 역사현실에서의 구원의 가능성은 무망했던 것이다. 현실이 암담하면 할수록 내세 지향적, 묵시문학적 성격이 힘을 얻게 된다. 또 현실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내세에서 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 탈 역사적 상황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시기 설교는 묵시문학적 성격이 강했다.

또 구약의 출애굽기, 다니엘이나 에스겔서, 그리고 신약의 계시록에 대한 설교가 의식 있는 설교자의 중요한 본문이 되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더라도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민족해방을 고취하려고 하였고, 에스겔 골짜기를 통해 민족의 소망을 주려고 했다. 후일 총독부가 출애굽기나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사실에서도 설교에 있어서의 민족의식이 분명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당시 설교의 전부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장로교목사들의 설교는 자유주의나 신비주의, 그리고 무교회주의에 대항한 변증적 설교도 적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1930년대 이전과 이후 교회에 큰 영향을 준 장로교회의 3목사, 곧 김익두, 길선주, 주기철의 설교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두고자 한다.

장로교회의 길선주 목사(1869-1935)는 29세 때 친구인 김종섭의 인도로 신앙을 갖게 되었고,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기간에는 부흥의 역사를 불러온 한국인 주역이었다. 그의 설교 제목들인, “지옥을 취하라, 천당을 택하라?,” “마음의 문을 열고 성신을 영접하라” 등이 보여주는 바처럼 그의

설교는 복음적이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내용이 많다. 그는 설교의 목적을 “죄의 더러움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광명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행위”³⁰⁾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회개, 중생, 그리스도의 대속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의 신학 중 종말론은 다소 특이한 점이 있다. 그는 전천년설을 주장했는데, 특히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믿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재림을 강조하였다. 재림이야말로 영생세계의 전제이며, 복음의 승리요, 교회의 결론이라고 보았다.³¹⁾ 길선주 목사는 회개 중생, 대속,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적 소망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의 현세적인 민족의 구원과 해방을 강조한 점이 특이하다. 그는 성경을 다독했지만 요한복음, 요한 일서를 애독하였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1만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는 내세적 소망을 강조하는 많은 설교를 했는데 이것은 암담한 현실로부터의 탈출이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설교 속에는 민족 현실에서의 독립과 해방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두 가지 경향성, 곧 내세적인 것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역사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많은 해석자들은 한 사람이 내면적, 영적인 것에 깊이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현실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반대로 현실문제에 집착하면 할수록 영적인 문제에 무관심하게 된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견해가 옳지 않다는 점을 길선주의 삶과 설교를 통해 보여준다. 그는 영적 지도자인 동시에 민족의 지도자였고, 그에게 양자의 동시성이 있었다.³²⁾

또 한사람의 설교가인 김익두 목사(1874-1950)는 부흥운동가로 널리 알

30) 정성구, 143.

31) 정성구, 152.

32) 한국의 진보적 교회사가들은 길선주가 처음에는 민족적인 경향이 강했지만 점차 내세적인 것으로 관심이 전환되었다고 하여 내세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의 동시성을 부인하기도 한다.

려져 있다. 황해도 안악에서 태어난 그는 악명 높은 강패였으나 27세 때인 1900년 소안론(William Swallen) 목사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1910년 평양신학교를 제3회로 졸업한 그는 1910년 목사안수를 받았고, 1920년에는 장로교 제9회 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1921년부터 부흥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중국과 시베리아, 일본 등 해외에까지 진출하였다. 그는 776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150여개 처에 교회를 개척 건축하였고, 2만 8천여회의 설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³⁾ 그는 당대의 최고의 설교자이자 부흥운동가로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특히 “믿는 지에게는 능치못한 일이 없다”(막9:23)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적과 치유를 행했는데, 그의 집회 중 병 나은 사람이 1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⁴⁾ 그는 신유의 사역을 통해 회개와 기도를 강조했다.³⁵⁾ 그리고 십자가의 도, 부활, 천당, 성령 등이 설교의 중심 주제였다.³⁶⁾ 따라서 그의 설교는 단순했고, 복음적이었다. 또 그는 구습이나 인습의 타파, 불신앙적인 관행, 무당, 미신타파 등 계몽적인 설교를 즐겨했다. 구습과 한국적 인습을 비신앙적 비복음적인 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의 영향으로 약 200여 명이 목사가 되었는데, 김재준(金在俊), 주기철(朱基徹)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설교에는 계몽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는 미신과 악습을 폐지하고자 시도하였다. 앞서 언급한바 있는 김장호 목사가 자유주의적 설교를 했을 때, 그는 김장호의 신학과 설교에 반대하고 순수한 복음, 곧 구원과 영생의 도를 설교의 중요한 주제로 삼았다.

주기철 목사(1897-1944)는 이 시기에 영향을 끼친 또 한 사람의 설교자였다. 어떤 점에서 그의 영향력은 그가 살아 있을 때보다 그가 순교한 이후에

33) 이성호 편, 『김익두 목사 설교 및 약전집』(혜문사, 1969), 176.

34) 김인서, 『김인서저작전집』 5권 (서울: 신망애사, 1976), 73.

35) 이성호 편, 174.

36) 이성호 목사가 편찬한 김익두 목사 설교 및 약전집에는 18편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설교는 김익두 목사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던가를 보여준다.

더욱 컸다고 볼 수 있다. 김익두목사의 부흥집회에 참석하여 목회자의 길을 결심한 주기철은 1922년 3월 평양의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925년 9월 이 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후 그는 부산 초량교회(1926-1931), 마산 문창교회(1931-1936), 평양 산정현교회(1936-1944)에서 시무하였고, 신사참배 반대로 1938년 2월 제1차 검속 이후 약 7년간 투옥되었다가 1944년 4월 21일 밤 47세를 일기로 순교하였다.

그의 설교가 어떠했는가를 논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그가 직접 쓴 설교원고는 불과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의 설교는 37편이 남아 있는데³⁷⁾ 그가 직접 쓴 설교는 오직 7편에 지나지 않으며³⁸⁾ 주목사가 남긴 설교 요약문을 기초로 김인서(金麟瑞)가 확대한 것이 9편이다.³⁹⁾ 그 외의 15편 중에서 2편은 김인서가 주목사의 설교를 듣고 기록한 것이며⁴⁰⁾, 1편은 유기선(劉基善)이 들은 설교를 김인서가 기록한 것⁴¹⁾, 2편은 이숙경(李淑京)이 들은 설교를 김인서가 기록한 것⁴²⁾, 나머지 6편은 밀양읍 교회 주남석(朱

37) 한국교회순교자 기념사업회편, 『주기철설교집』(엠투오, 1992)에는 29편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되지 않는 설교 3편이 있는데, “삭개오의 신앙”(『주간기독교』, 1974. 8월호; 민경배, 『순교자 주기철목사』, 대한기독교서회, 1997, 353-356)과 “기도지남”(『대화여자관』, 1938. 9월호; 민경배, 『주기철』, 동아일보사, 1996, 202), “魔鬼에 대하여”(『설교』 1937. 4월호; 『한국기독교백주년 기념 대설교전집』, 서울 박문출판사, 1974, 제3권, 53ff.)가 그것이다. 이상규, “주기철의 신사참배 반대와 저항”, 『기독교사상연구』 4호(1997. 7), 201 참고.

38) 그가 직접 쓴 7편의 설교는 당시 발간되던 간행물에 게재된 것인데,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간행물명과 게재호임). “사의 준비”(『종교시보』, 1934, 8),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종교시보』, 1935, 2), “마귀에 대하여”(『설교』, 4호, 1937), “무거운 짐 진 자여 예수께로 오라”(『복음시대』, 1호, 1937), “박해하려 가는 길에 홀연 회개”(『복음시대』, 1937, 6), “겸손하기 위하여”(『신학지남』, 1939), “십자가의 길로 행하라”(『설교』, 1937, 9).

39) 이 9편의 설교는 “죄값은 사망”,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영으로 살자”, “새 예배당 입당예배의 기원”,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성신을 받으라”, “죽음의 준비”, “영으로 살자” 등이다.

40) 이 두 편은 “일사각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취하심”이다.

41) 이 설교가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다.

42) 이 두 편은 설교가 “주안에 무소불능”,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南石) 장로가 기록한 것이다.⁴³⁾ 물론 이 설교를 통해서도 주기철의 설교의 내용과 형식을 헤아릴 수 있으나 그의 설교는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필자는 그의 설교 “마태복음 강해(1-7), ” “주기도문 강해” “성탄절을 당하여 세계의 신자들에게 격(檄)을 전하노라 (눅2:14)” 등을 발굴하여 신사참배가 문제화되기 이전의 설교에 대해 주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⁴⁴⁾

건실한 목회자였던 주기철은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그가 초량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은 그가 경남 출신이라는 점 외에도 당시로서는 비교적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그가 1936년 평양산정현교회에 청빙을 받은 것은 그의 감화력 있는 설교가 혼란했던 산정현교회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주기철 목사는 산정현교회 담임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설교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를 반영해 주듯이 1937년 한 해 동안 그의 설교 10편이 설교전문잡지인 『설교』에 게재되었다. 주기철목사는 문창교회 재직 시부터 부흥사경회 강사로 초청받기 시작했고, 장로교목사 수양회(1936. 5), 장로회 제26회 총회 당시 강사(1937. 9)로 초청된 점 등은 그가 설교자로 명성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목사의 설교는 이 당시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20년 이후의 한국교회 설교에 대한 자료가 되는 『백목강연 白牧講演』,

43) 이 6편의 설교는 “이삭의 공헌”, “하나님을 열애하라”, “성신과 기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의 재림” 등이다.

44) 이 설교는 경남노회 종교교육협의회가 발간하던 『종교교육통신』(후에 『복음과 종교교육』)으로 제호변경 됨)에 게재된 것인데, “주기도문 강해”는 『종교교육통신』 제3호(1931. 1. 31)에서 제14호(1932. 2. 25)까지 연재된 것이다. “마태복음 강해”는 『종교교육통신』 제16호(1932. 3. 20)부터 제30호(1933. 11. 1)까지 연재된 강해설교이다. 그리고 “성탄절을 당하여 세계의 신자에게 격(檄)을 전하노라(성탄설교)”는 『복음과 종교교육』 제31호(1933. 12. 1)에 게재된 원고이다.

『조선의 강단』, 『희년기념 목사 대 설교집』 등을 보면 한국교회 설교는 형식면에서 제목설교(topical preaching)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목설교는 선교사들의 일반적 설교방식으로 선호되었고 한국교회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제목설교 선호 현상은 뚜렷이 나타났다. 1920년에서 1930년까지는 제목설교가 73%를 차지했다.⁴⁵⁾ 이 당시 설교자들이 본문설교(textual sermon)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한국어 성경 본문의 자구적(字句的) 해석에 지나지 않았다. 성경신학이나 신학전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진정한 의미의 본문설교이지 못했다.

1930년대 주기철목사의 설교도 이런 큰 틀 안에서 행해졌는데, 3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그의 설교도 제목중심의 설교로서 설정된 주제를 강화해 가는 방식을 따르고 있고 때로 예화와 비유가 사용되었다. 둘째, 구속사적이라기 보다는 ‘모범(範例)설교’(exemplary preaching)라는 점이다. ‘모범설교’란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이해하고 선포하는 설교방식인데, 이런 설교는 도덕적 혹은 윤리적 설교라는 특성이 있다. 이런 설교는 구약 보다는 신약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성경본문의 구속사적 관점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약점이 있다. 반대로 이런 설교는 난해하지 않아 수용성이 높고, 강한 도덕적 요구 때문에 한국 현실에 적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셋째, 구약보다는 신약 본문을 선호했다는 점이다. 확인된 설교 본문을 보면 신약을 본문으로 한 경우가 20회인 반면 구약본문의 설교는 오직 6회에 지나지 않아 전체 설교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 점 역시 제한된 자료에 근거한 통계이지만, 주기철 목사의 경우에서도 신약본문을 선호한 것은 분명하다. 이 점은 거의 모든 한국인 설교자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다.

45) 이호우, 234.

흔히 주기철 목사의 설교에서 ‘일사각오’로 상징되는 이상숭배에 대한 저항과 투쟁에 강조를 두지만, 이것은 주기철목사의 설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동안 한국교회가 ‘순교자로서의 주기철’상에 집착하여 ‘영혼의 목자로서의 주기철’상을 동시에 보지 못했다. 주기철 목사에게는 이상숭배 강요와 같은 국가권력의 탄압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자애로운 목회자였고 상처 난 영혼을 안고 씨름하는 영혼의 교사였다. 그의 설교에는 4가지 특징이 엿보이는데, 첫째, 그의 설교에서 영적 변화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그의 설교 속에 나타난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었다. 그의 설교, “영으로 살자, ” “성신을 받으라, ” “성신과 기도”가 이점을 강조한다.

둘째, 주기철 목사의 설교에는 분명한 사생관이 나타나 있다. 사생관은 단지 삶과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적 삶에 대한 태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이 그의 순교적 투쟁을 가능하게 했고,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

셋째, 주기철 목사의 설교에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차 있다. 그의 설교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오는 희망이 나타나 있고 그것이 그의 신앙을 관통하고 있다. 주기철 목사가 장기간 고난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께 완전히 자기를 의탁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라는 확신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넷째, 그의 설교 속에는 역사 심판사상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 점은 신사불참배론자들의 예심종결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특히 주기철 목사의 설교에는 예언자적 선포와 동시에 역사에 대한 심판사상이 분명하다. 주기철의 설교에서 민족주의적인 특징을 말하는 이도 있으나 민족주의적 동기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주기철의 생애 여정, 곧 삶과 순교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해석이 잘못이라는 점은 특히 그가 1936년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행한 “3가지 신앙”이란

제목의 설교에 잘 나타나 있다.⁴⁶⁾ 그는 길선주나 김익두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의식과 복음운동을 구별하고 있었다. 그는 순수한 복음주의자였고, 그의 삶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가장 민족적일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가운데서도 가장 선명하게 복음의 핵심과 민족적인 것을 구분하고자 했다.

이상에서 언급한 해방이전까지의 설교를 정리해 보면 내용 면에서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순수한 복음적인 설교로서 이교적 문화나 관습을 버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경우에 성수주일, 금주, 단연, 조상제사 금지⁴⁷⁾ 등 구습으로부터의 탈피를 요청하는 성격이 강했다. 둘째 내세 지향적이고 탈 역사적인 설교가 많았다는 점이다. 일부의 의식 있는 설교자의 경우는 예외이겠지만 대체로 설교는 내세 지향적이었고, 역사현실에 대한 관심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셋째 민족 현실과 해방,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설교도 이 시대 설교의 한 특징으로 볼

46) 이상규, 231.

47) 이런 경우를 보여주는 한 예가 전도책자 『구세론』에 나타나 있다. 이 책에서는 문답의 형식으로 기독교의 정신과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문: 제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뇨, 아니 마땅하뇨

답: 마땅치 아니하다

문: 예수교 하는 사람이 조상에 제사하는 것이 옳으뇨 옳지 아니하뇨

답: 옳지 아니하니, 일체 못하느니라.

문: 어찌하여 옳지 아니하뇨.

답: 조상이 이미 세상을 버리고 갔으니 능히 먹지 못할 것이매 제사는 헛된 일이 되고 또 정령히 여호와 계명을 범하는 것이니 외양으로 제내는 체도 못하느니라.

문: 내가 제사를 아니하면 어지 조상공경하는 마음을 표하리오.

답: 조상을 사모하며 그 교훈을 생각하며 그 분부한 것을 좇아 행하며 평생에 잊지 아니하는 것이 조상 공경하는 마음을 표하느니라.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민족의식』(지식산업사, 1991), 223에서 중인.

수 있고 감리교의 경우가 장로교의 경우보다 더 강했다. 이런 경향의 대표적인 인물이 감리교의 전덕기(全德基)였다. 이런 특징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 시대 설교의 한 유형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런 설교는 많지 않고, 또 이 당시 출판된 설교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것은 총독부의 검열 때문에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을 것이다. 어떻든 모세나 여호수아의 생애와 활동이 설교되었고, 에스겔과 다니엘서가 의도적으로 설교되었으나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증거는 없다. 정성구는 성서공회의 부총무였던 허엽(許燁)목사의 설교, “연중총(燃中叢)을 민족해방을 고취하는 비유적 설교로 지적하고 있으나⁴⁸⁾ 사실 그런 성격의 설교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허엽목사는 출애굽기 3:2절을 본문으로 불속의 가시덤불이란 의미의 이 설교⁴⁹⁾에서 “불속의 가시덤불은 환란 중에 예수교회와 같다. 흠수 잇으니 불노 사를지라도 업서지지 아니함니다.”라고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민족 구원을 비유적으로 설교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설교의 형식면에서는 해방 이전까지 여전히 제목설교, ‘모범 설교’가 유행하였고, 도덕주의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일제말기 일제의 탄압은 더욱 가중되었다. 예배와 설교, 찬송에 대한 세심할 정도의 간섭은 당시 교회의 설교가 민족해방과 독립을 고취한다고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교회의 공식적인 집회를 제한하였고, 민족해방이나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출애굽기나 다니엘서, 내세사상이 강한 요한 계시록 등을 삭제하고 설교하지 못하도록 요구하였다. 찬송 중에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나 “믿는 사람들과 군병 같으니, ” “천부여 의지 없어서” 등은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일제는 ‘종교보국’(宗教報國) 혹은 ‘일본적 기독교’를 의도하였고, 한국기독교회를 소위 ‘국체(國體)를 밝히는 야소교’로 강제하고자

48) 정성구, 21.

49) 양익환편, 『백목강연』, 42-53.

했던 것이다. 이 시기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과 그 설교는 일제의 민족정신 말살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비극적 지성’으로 전락하였다. 다시 말하면 일제는 우리 민족 밑바닥에 흐르는 민족의식, 독립정신 등을 제거하고자 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바처럼 민족해방의 전거(典據)가 될 수 있는 출애굽기나 에스겔서, 다니엘서 등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애굽시의 홍해를 건넌 사건은 민족해방이라는 조선의 현실적 과제 앞에 소망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홍해를 갈대밭으로 설명함으로써 홍해 도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말하자면 일제가 그토록 추구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민족의식의 기초를 제거하는 일을 자유주의자들이 대신한 것이다.

4) 해방 후 1950년대의 설교

1945년 해방 이후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재건, 회개와 자숙이 강조되었다. 해방과 함께 교회재건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노회나 총회 등 일제하에서 해산된 기구적 재건이 아니라 영적 쇄신이었다. 영적 쇄신이란 바로 회개와 자숙운동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설교는 교회재건과 회개, 자숙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었다. 특히 이런 경향은 1952년 총노회의 조직으로 출범한 고신교회는 더욱 그러했다.⁵⁰⁾ 고신교단은 일제하에서의 신사참배 죄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를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해방된 조국에서의 새로운 교

50) 이 시기 고신교회의 설교의 일반적 특징을 헤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출판된 자료로는 『과수군』(1949. 3-1961. 12)에 게재된 고신교단 목사의 설교와 한상동, 『신앙세계와 천국』(부산: 아성출판사, 1970), 『고난과 승리』(고려신학대학 교회문제연구소, 1980), 그리고 이약신, 『어떻게 살아야 할까』(칼빈문화출판사, 1961) 등이다. 또 오종덕목사의 설교 등이다.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도서관에는 한상동목사의 수기본(手記本) 설교 30여 노트가 보관되어 있다. 1950년대의 한국교회의 일반적 설교 경향에 대해서는 『선교 70주년 기념 설교집, 상, 하』(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 1954)를 참고할 것.

회건설의 기초라고 보았다. 회개는 이 시기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한상동목사가 『과수군』 2호에 쓴 논설 “현하 대한교회에(上)”⁵¹⁾는 사실은 논설이 아니라 설교였다.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길을 걸어 온 한국교회에 대한 진노를 선포하고 진정한 회개를 촉구한 이 글은 이 당시 설교의 방향을 대변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52년 9월 2일 진주 성남교회에서 고신교단의 첫 치리회인 총노회를 조직할 때 설교자인 이약신 목사의 설교 제목이 요한일서 2장 12-17절에 근거한 “하나님 앞에서 자숙하자”였다. 1950년대 한국교회, 특히 고신과 교회는 이런 기초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순종을 강조하였다. 비진리에 대한 불 타협적인 생활의 엄격성은 설교의 주된 요구였다. 이런 점 때문에 고신과 교회는 한국의 다른 교회들로부터 바리세주의라는 비난을 감내해야 했다.

이 시기 존경받던 인물이었던 손양원 목사의 설교에서도 회개는 가장 중요한 선포였다. 그가 좌익들에 의해 체포되어 설교하지 못한 최후의 설교문, “한국에 미친 화벌의 원인”도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손양원은 설교 서두의 6.25의 발발 원인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다.⁵²⁾

오늘의 이러한 대환란은 4천년 역사상 초유의 신벌이다. 벌써 3개월 가깝게 3천만이 이 환란을 일시에 당하고 있지 않느냐. 국가적으로는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교회적으로는 성전은 다 잃었으니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리오! 하물며 동족상쟁에 있어서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눈동자 같이 애지중지 하셨건만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니 70년이란 긴 동안을 크게 고생케 하셨다. 당시 예레미야 홀로 웨쳤으나

51) 한상동, “현하 한국교회에 (上), 『과수군』 2호(1949. 4), 8-13.

52) 손양원 목사는 애가 4.5장을 본문으로 “한국에 미친 화벌(禍罰)의 원인”이라는 설교문을 남겼는데, 그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잡히시던 9월 13일 수요일 저녁 설교할 원고였다. 그러나 설교하기 전에 체포되어 이 설교문은 미완성의 설교하지 못한 설교문이 되었다. 출전, 안용준편, 『손양원목사의 설교집』, 31-39.

회개보다도 도리어 뽐박하고 박해했다. 그런고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시어 징벌 하셨으니 이 애가서는 주전 586년 유대국과 성전 망하는 비극을 보고 쓴 말이다. 내가 오늘에 이 죄악상을 말하면 우익에게나 좌익에게나 정치가에게나 경관에게나 미국인에게나 교역자 혹은 교인에게 육을 먹고 매 맞고 죽임 당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대명이시니 전하다가 죽더라도 내 어찌 안전할 것이겠느냐? 나는 네 가지 큰 죄악의 원인을 말 하겠으니 각각 자기 죄에 비추어서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는 물론 나의 소원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일까 한다.

손양원 목사가 남긴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죄를 얼마나 경계했고 그리고 회개를 신자의 삶의 일상으로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손양원 목사는 “성경대로 살자”는 설교를 즐겨했는데, 이 설교⁵³⁾는 1950년대 설교의 주된 주제였다. 이런 경향 때문에 당시 설교가 비블리시즘으로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성경신학적인 고찰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 없이 문자적 엄격성이 곧 진리 파수라고 믿는 순진함이 바로 그것이다. 어쨌든 1950년대 설교자들은 진리 파수와 진리운동의 계지(繼持)를 설교자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 혹은 원칙은 강조되었으나 그것의 실생활에서의 적용은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950년대 설교에서 천국의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강조한 것은 특기할 점이다. 이것은 뚜렷한 역사의식을 반영해 주는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확신은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의 행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한상동을 비롯한 출옥 성도들의 설교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심판에 대한 의식이 설교와 생활, 그

53) 손양원, “성경대로 살자,” 『파수군』 4호(1950. 4), 3-6.

기저에 확연히 나타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 신전의식,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였다. 한상동목사의 설교집의 제목인 “신앙세계와 천국,” “고난과 승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신뢰와 소망, 그리고 역사통치와 심판에 대한 그의 생애적 확신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다.

이 당시로 볼 때 목회자들은 본문설교에 치중하였다. 비록 제목 설교라고 할지라도, 본문의 의미를 천착하고자 노력하였고, 예화나 사적 경험보다는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의 교훈을 제시하려고 힘썼다. 어떤 점에서는 강해설교에 가까운 설교를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1960-70년대의 설교

1960년대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변혁기였다. 이 새로운 한 시기는 1960년 학생혁명과 이듬해의 5.16 군사혁명으로 시작되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정권은 경제성장을 제일의적 과제로 추구하고, 이것은 군사혁명의 당위성을 피하는 명분으로 강조되었다. 이 시대의 구호였던 ‘잘 살아 보세’ 철학은 정신적 가치를 배제한채 물질적 풍요를 향한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성장지상주의(成長至上主義)는 한국사회의 주도적인 이데올로기였다. 성장지상주의란 경제성장을 제일의 가치로 수용하는 사회공동체적인 가치체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성장지상주의는 다른 모든 규범에 선행하는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었다. 이런 성장제일주의는 ‘성장’ 이외의 가치는 경시하거나 무시했다는 점이다. 성장만 이룰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무시하거나 경시해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한국에 수많은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는 196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 이후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54) ‘교회성장’은 최선의 요구이자 최선의 가치로 수용되었다. 그래

서 이 시기 설교의 가장 주요한 주제는 ‘성장’이었다. 전도운동이 강조되었고 총동원 전도라는 이름의 대중 초청집회가 유행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눅14:23)⁵⁵⁾는 교회의 표어이자 설교의 주제였다. 전도가 강조된 것은 좋으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광의의 전도명령의 수행이라기보다는 개교회 성장에 강조를 둔 수적 확장을 의도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물질적 풍요와 현세적 축복이 강조되었다. 기독교 신앙은 물질적 축복을 위한 전거로 강조되었다. 이 시기에 흔한 설교제목은 ‘축복의 비결’, ‘축복 받는 생활’ 등 이었고, 신명기 28:1-6, 빌립보 4:13, 요3:1-2 등은 인기 있는 설교본문이었다.⁵⁶⁾ 그래서 기복신앙(祈福信仰)은 이 시기의 한국교회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구약은 한국특유의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축복과 저주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었고, 이를 위한 모범으로 그리고 예화로 인용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제일주의 정책 외에도 이 시대의 축복 지향적 설교와 목회 경향성에 영향을 준 다른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순복음교회의 조용기(趙鏞基) 목사의 영향이었다. 조용기 목사는 1958년 5월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를 시작하였고, 1970년 여의도로 이전하여 세계 최대의 교회당을 건축하였고, 약 60만의 신자를 가진 교회로 성장시켰다.

54) 예컨대, 1955년 한국의 기독교신자는 약 60만 명으로 추산되며 1965년에는 약 120만 명으로 성장하였고, 이로부터 10년 뒤인 1975년에는 약 350만 명, 1980년의 경우 정부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 신자가 718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는 매 10년마다 배가 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는 하루에 6개 교회씩 설립되는 것으로 보고 되기도 했다. 수적으로 말하면 1970년대 이후에는 매년 60만 명씩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5) 어거스틴은 이 본문에 근거하여 ‘정의에 근거한 경우’에 국가권력을 통해 이단을 박멸할 수 있다고 보고 이단 박멸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무력행사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것이 *compelle intrare*이다.

56) 예컨대 어느 목사의 구약설교는 시종 ‘축복’이라는 주제 일변도였다. “아담과 이브의 축복”(창1:24-31), “아브라함의 순종과 축복”(창 22:1-19), “요셉의 꿈의 성취를 통한 축복”(37:1-36) 등이다(예장총회교육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설교집』, 상권, 1979).

그의 설교는 각종 전파를 타고 국내외에 소개되었고, 그의 순복음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로 목회자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영향 때문에 신학이나 교회전통과 관계없이 수적 성장은 최선의 가치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경향이 197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 교리 경시 풍조를 초래하여 소위 ‘비교리적 시대’(undogmatic age)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 이런 경향성은 이 시기 설교에도 뚜렷이 반영되었다.

다른 한 가지는 폴리신학교 교회성장학과(**Church Growth School**)의 영향이었다. 1970년대 이후 이 학과의 이론이 각종 세미나에서 소개되었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ACTS**)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주제에 나타나 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은 1970년대 말부터 미국 폴리신학교와 연계하여 목회학 박사학위과정(**DMin Programme**)을 개설하였는데, 1983년 첫 학위를 수여한 이후 1997년까지 234명에게 목회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이들 중에 직접적으로 교회성장의 문제를 취급한 논문이 84편으로 전체논문의 36%에 달했다.⁵⁷⁾ 간접적인 논문까지 고려한다면 약 40%의 논문이 교회성장과 관련된 논문이고, 그것도 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였다. 이 논문들은 폴리신학교 교회성장학과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점을 보면 교회성장이 목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폴리신학교의 교회성장학과의 영향이 지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이 시기 설교는 물질적 축복을 강조하는 경향이 지대하였고, 흉(凶)과 화(禍)를 피하고 길(吉)과 복(福)의 추구를 신앙의 이상으로 강조하였다. 따라서 차원 높은 생활윤리나 공의(公義), 가치의식,

57) 아시아연합신학 교무처가 만든 “DMin 졸업생 논문제목 및 지도교수 일람표”(1997) 참고. 교회성장과 관련된 논문제목은 “교회성장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교회성장과 설교”, “평신도 신앙훈련과 교회성장” 등과 같다.

혹은 삶의 문제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이것은 기복신앙이라는 왜곡된 형태의 신앙행태를 불러왔다. 기독교 신앙을 양재(讓災)나 치병(治病) 등과 같은 측면으로만 본다면 본래적 기독교회가 가르치는 이타적(利他的) 성격은 크게 훼손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 자성과 비판이 없지는 않았다. 미국 나성한 인교회 담임목사로 일하던 김의환 목사는 한국교회에 풍미하는 그릇된 축복지향적 설교와 목회형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성경적 축복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성경적 축복관』이란 책을 출판하였다.⁵⁸⁾ 이런 책이 출판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김의환은 한국교회는 중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값싼 복음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 몰려든 무리를 보고 부흥되고 있다고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되었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축복개념이 지극히 물량적인 차원에서 취급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⁵⁹⁾ 그리고 이재야말로 번영의 신학(theology of prosperity)을 극복하고 복음의 바른 이해, 곧 건실한 신학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였다.⁶⁰⁾

성장지상주의는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교회의 표식으로 제시해 왔던 정당한 치리(治理)의 시행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엄격했던 치리가 사라지고 교회의 연대성, 공동체적 성격이 파괴되었고, 결국 개교회주의가 심화되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설교는 “번영을 위한 설교”(preaching for prosperity)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은 주로 보수적인 혹은 복음주의적 교회의 현실이었지만 1970년대

58) 김의환, 『성경적 축복관』(서울: 성광문화사, 1981). 이 책은 『신학지남』 190호(1981, 봄), 192호(1982, 가을, 겨울)에 연재하였던 글을 묶은 것이다.

59) 김의환, 위의 책, 9.

60) 위의 책, 12.

이후의 진보적 교회의 설교는 박정희정권에 대한 저항이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저항의 설교였고, 인권과 민주화는 설교의 주제였다. 그래서 인권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이 강조되었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설교가 행해졌다. 이들의 설교는 시사강연과 같았고, 그 설교 유형은 어설픈 성경인용과 모범적 강조였다. 어거스틴이나 17세기 화란의 아메시우스(Amesius, 1576-1633), 그리고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성경만이 설교를 위한 유일한 원천이라고 했으나 자유주의자는 성경(text)보다는 상황(context)을 더욱 중요한 설교의 원천으로 보았다. 엄요섭은 1970년대의 이런 경향에 대해 “성경은 예배순서의 하나로 읽기만 하고 신문 사설 같은 이야기로 열변을 토하고 설교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⁶¹⁾

분명한 사실은 1970년대 이후 한국교회가 보수, 진보계로 양극화되었던 것처럼, 교회의 설교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당시 설교의 유형은 보수나 진보가 동일하게 ‘모범 중심의 설교’였다는 점이다. 비록 설교 내용이나 설교의 목표는 달랐다 할지라도 설교의 방식은 모범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보수적인 설교자들은 현세의 축복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모범’으로 인용하였다면, 진보적 인사들은 구원과 해방을 설교하기 위해서 출애굽사건을 ‘모범’으로 해석하였다. 보수와 진보적 설교자들의 차이점이란 ‘무엇을 모범으로 했느냐’의 차이에 불과했다.

6) 1980년대 이후의 설교

여전히 한국교회에서는 제목 설교와 ‘모범’ 중심의 설교가 유행하고 있지만 1980년대 초반부터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변화란

61) 엄요섭, “한국교회 설교의 시대적 형태론(상),” 『기독교사상』(1972. 4), 126.

구속사적(heilsgeschichtlich) 설교⁶²⁾가 소개되고 설교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 곧 강해설교가 중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시기에 와서 처음으로 강해설교 혹은 성경에 대한 구속사적 접근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 이전부터 이런 설교를 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홍전(金弘全, 1914-2003) 목사였다. 그는 이미 1940년대부터 강해설교자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비로소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관심과 강해설교가 한국에 폭넓게 소개되고 이런 새로운 방식은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관심은 화란에서는 이미 1930년대에 전개되었으나 한국교회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강해설교에 대한 외국학자들의 책이 번역되고, 강해설교에 대한 저술 혹은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⁶³⁾ 이와 같은 변화는 그 동안 설교가 지나치게 제목 중심의 모범 위주의 설교였다는 반성이 가져온 결과였다. 제목설교는 두 가지 위험이 있다. 첫째는 메시지의 내용이 성경본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요구에 맞춘다는 점에서 인간의 사상을 전할 위험이 있다. 다른 하나는 설교가 성경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사상을 전하기 쉽고, 성경이 설교자의 사상을 뒷받침 해 주는 전거(proof reading)로 전락할 위험이다. 말하자면 성경이

62) Holwerda는 이를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불렀다.

63) 이 때 출간된 구속사적 설교나 강해설교에 대한 대표적인 역, 저술서들은 다음과 같다 (출간 연대순). 하돈 로빈슨(Haddon W. Robinson, 박영호역), 『강해설교』(Bible Preaching)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드 그라프(S. G. De Graaf, 박찬섭역), 『약속 그리고 구원』, I-IV, (크리스찬서적, 1985), 트림트(C. Trimp), (구속사적) 『설교학 강의』(De Preek)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박종철, 『구속사적 성경해석』(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고재수,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시드니 크레이다너스(Sidney Greidanus, 권수경역),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Sola Scriptura) (학생신앙운동, 1989) 등이다. 특히 시드니 크레이다너스의 책은 성경을 구속사적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 대표적인 작품이다. 또 고재수의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24편의 설교를 통해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와 사례를 제시해 주었다.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용하기 싶다. 그래서 팩커(J. I. Packer)는 이 점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종교적 전문가에 의해 퇴색, 변조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⁶⁴⁾ 모범설교 또한 두 가지 위험이 있다. 첫째는 성경의 역사성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역사적 본문을 모범으로 볼 때 계시의 진정한 의미는 상실된다. 그래서 스킨더(Klaas Schilder, 1890-1952)는 역사적 본문을 모범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통일성을 부인하는 것이라 하여 이런 해석법을 “단편적 해석”(fragmentary interpretation)이라고 칭하였다.⁶⁵⁾ 이것은 본문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성경을 오직 도덕으로 이해할 위험이다. 그래서 본문의 구속사적 의미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시기에 와서 제목설교 혹은 모범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절한 최선의 설교방식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 설교자들이 강해설교를 선호하지만, 여전히 제목설교가 오늘의 한국교회 설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3. 반성과 평가: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와 과제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에서의 설교가 어떠했는가를 197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한국교회에는 설교 구성에 있어서 3대지(三大旨) 설교가 지배적이었다. 이것은 설교의 내용을 3가지 항목으로 요약화(要目化) 하는 방식인데, 제목설교이든 본문설교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런 설교형식이 설교의 내용을 간명하게

64) 제임스 팩커, 『근본주의와 성경의 권위』(개혁주의신행협회, 1973), 133.

65) 박종철, 35-36, 81-82.

정리하여 준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에 유익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의 설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관행이므로 한국교회의 특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설교 관행에 영향을 준 이가 박윤선 목사였다. 박윤선은 성경전권을 주석한 첫 한국인으로서 그의 주석은 해방 이후 한국교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의 주석에 포함된 설교는 거의 전부가 설교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화하는 대지(大旨) 중심의 설교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설교 유형이 독자들의 설교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제 종합적으로 한국교회 설교에서의 문제와 과제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교회 설교에서 가장 현저한 설교방식은 ‘모범’ 설교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성경의 인물, 사건, 제도를 통해 어떤 ‘모범’(example)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설교는 특히 인물 설교에 집중되는데,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이상적인 모범, 혹은 피해야 할 경고적인 모범으로 제시한다. 즉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을 하나의 모델로 사용하여 영적, 도덕적 교훈을 취하려는 설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설교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어떤 모범을 발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기 때문에 홀웨다(B. Holwerda)는 이를 ‘모범론적’ 혹은 ‘모범주의적’ 설교라고 명명했다. 홀웨다는 이런 설교는 결국, 성경의 역사를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다양한 독립적인 역사들로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⁶⁶⁾ 이런 설교는 구약 본문의 역사적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즉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오늘날의 사람들 사이의 역사적 단절을 간과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사이에 역사적 등식부호(historical equation mark)를 그어 준다. 이런 설교가 대체적으로 구약 사건에서 도덕적 귀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덕적 설교로 흐르기 쉽고, 결과적으로 성경

66) Sidney Greidanus, *Sola Scriptura*, 19.

의 구속사적 메시지를 상실하게 하는 위험이 있다. 이런 형식의 설교가 한국 교회의 오랜 설교 관행이었다.

둘째, 설교에 있어서 풍유화(Allegorizing), 혹은 신령화(Spiritualizing) 경향이 없지 않았다. 성경의 세계와 우리 시대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 문화적인 차이를 간과하는 설교의 또 다른 한 형태가 성경 본문을 풍유화 하거나 신령화하는 경우이다. 이 양자는 본문이 주어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풍유적 해석은 성경 문자 배후에 어떤 신령한 뜻(眞意)이 숨어 있다고 보고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을 설교의 목적으로 이해한다. 즉 ‘진리 이면의 진리’(truth behind the truth)를 찾는 해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취급될 수 없고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 역사적 문맥을 무시하거나 비역사적인 것으로 보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것은 우연적이고 유동적인 반면에 영원한 것은 부동적인 존재로 보아 역사적인 것을 참된 실재성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나 설교는 본문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풍조가 편만하다. 영해(靈解)라는 이름의 해석이 이런 범주에 속한다. 이런 위험 때문에 존 스탠트(John Stott)는 성경해석과 설교에서 ‘역사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⁶⁷⁾

셋째, 구약본문에 대한 소홀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교회만의 경우는 아니었다. 미국의 구약학자 악트마이어(E. Achtemeier)는 “미국교회가 구약을 상실할 단계에 있으며 구약을 상실한다는 것은 신약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⁸⁾ 그리고 그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구

67) 존 스탠트, 『성경연구 입문』(성서유니온, 1978), 32.

68) E. Achtemeier, *The Old Testament and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Westminster Press, 1973).

약 중 어느 하나의 본문을 택하여 설교할 것이 아니라 성구집(lectionary)을 사용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하나로 묶어 선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구약 본문에 대한 소홀은 호주교회에서도 동일했다. 호주장로교신학교 교수였던 나이젤 리(Nigel Lee)는 구약본문에 대한 설교의 극심한 소홀을 지적하면서 적어도 구약설교를 신약본문의 4배 이상해야 균형 잡힌 설교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교회에 강단에서도 구약이 소홀히 취급되었다. 1982년 장일선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의 대표적인 설교자 20여명이 출판한 설교집에 나타난 설교본문을 조사해 본 결과 구약이 설교본문으로 채택된 경우는 전체 설교의 2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구약 중에서도 창세기, 시편, 이사야, 출애굽기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⁶⁹⁾ 구약 설교는 전체 설교의 4분지 1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4권의 책이 주로 설교되고 있으므로 다른 35권의 구약 본문은 비록 비의도적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무시되거나 경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은 현재도 동일하며, 보수주의 혹은 개혁주의적 설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⁷⁰⁾ 이와 같은 현실은 오늘에도 동일하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구약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역사적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의 결핍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구약은 주로 기복신앙을 위한 예증이나 모범으로 이해되었고, 구속사적 관점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설교에 치중하였다.

넷째 성경 원전에 대한 이해력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교회를

69) 장일선, “한국교회와 설교,” 『세계와 선교』 79(1982. 12), 36.

70) 오병세(吳秉世) 교수는 구약 전공 교수였으나 그의 설교집, 『그럼으로의 생애』(개혁주의 신행협회, 1980)를 보면 구약을 본문으로 한 설교는 오직 15%에 지나지 않았다. 박윤선은 1970년대에 3권의 설교집을 출판했는데 그의 설교집에도 보면 구약본문에 대한 설교는 21%에 그쳤다. 『영생의 원천』(영음사, 1970)의 경우, 118편의 설교중 구약은 24편으로 220.3%에 지나지 않았고, 『응답되는 기도』(영음사, 1974)의 경우 32편의 설교 중 구약은 6편으로 18.7%, 『주님을 따르자』(영음사, 1975)의 경우, 90편의 설교 중 구약은 21편으로 23.3%에 불과했다.

갱신하는 최선이 길은 강단의 개혁이며, 강단을 쇠신하는 최선의 길은 성경 원전을 해독할 수 있는 언어적, 신학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설교자에게와 설교를 듣는 청중 양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해명하는 일이다. 번역 성경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설교자의 임무이자 특권이다. 성경번역자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언어적, 문화적 문법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있을 때 한국교회 강단을 쇠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성경적인 설교 (biblical preaching)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그레꼬-로망사회와 역사와 문화를 아는 것도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일 것이다. 이런 점은 바르게 번역되지 못했거나 불분명한 의미로 번역된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처럼 한국교회의 갱신은 한국교회 설교의 갱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재수,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 곽안련, 『설교학』, 대한기독교서회, 1960.
-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총회종교교육부, 1956.
- 김의환, 『성경적 축복관』, 성광문화사, 1983.
- 대장총회 종교교육부 편, 『역대 총회장 설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 1955.
- 원두우, 『원두우 강도취집』, 예수교서회, 1920.
- 안용준편, 『손양원목사의 설교집』, 신망애사, 1957.
- 양익환편, 『백목강연』, 활문사, 1921.
- 이만열, 『한국기독교 수용사 연구』, 두레시대, 1998.
-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생명의 양식, 2007.
- 이성호 편, 『김익두 목사 설교 및 약전집』, 혜문사, 1969.
- 이호우, 『곽안련의 신학과 사상』, 생명의 말씀사, 2005.
- 정성구, 『한국교회 설교사』, 총신대학교출판부, 1995.
- 정인파 편, 『희년기념 목사 대 설교집』, 서울, 1935.
- 존 스타트, 『성경연구 입문』, 성서유니온, 1978.
- 크레이다너스(Sidney Greidanus, 권수경역),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SFC, 1989.
- 패커, 『근본주의와 성경의 권위』, 개혁주의신행협회, 1973.
- 한국교회순교자 기념사업회편, 『주기철설교집』, 엠마오, 1992.
- 한상동, 『신앙세계와 천국』, 아성출판사, 1970.

Achtemeier, E., *The Old Testament and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Westminster Press, 1973.

Bradly, J. E. and Müller, R. A. eds., *Church, Word and Spirit*, Eerdmans, 1987.

- Carpenter, J. A., *Earthen Vessels, American Evangelicals and Foreign Missions, 1880-1980*, Grand Rapids, Eerdmans, 1990.
- Clark, A. C., *A History of Church in Korea*, CLS, 1973.
- Conn, H., *A Study of the Theology 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1986.
- Fisher, J. E., *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 in Korea*, NY: Columbia University, 1928.
- Grayson, J. H., *Early Buddhism and Christianity in Korea*, Leiden: Brill, 1985.
- Latourette, K. S., *Christianity in a Revolutionary Age*, Vol. III, Grand Rapids: Zondervan, 1964.
- Marsden, G.,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The Shaping of Twentieth-Century Evangelism, 1870-1925*, Oxford Univ. Press, 1980.
- Runia, Klass, *The Sermon Under Attack*, Exeter: The Paternoster Press, 1983.
- Vander Stelt, *Philosophy and Scripture, a Study in Old Princeton and Westminster Theology*, New Jersey: Mack Pub. Co., 1978.